

‘아이 좋아라~’ 영광군, 합계출산율 2년 연속 ‘전국 1위’

2.46명

전국 평균보다 1.62명 많아
결혼부터 육아까지 맞춤 정책
인구·일자리정책실 신설 등
저출산 극복에 행정력 집중

영광군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1위에 올랐다. 2년 연속 최정상이다. 결혼부터 육아까지 단계별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2.46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0.84)보다 1.62명이 높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고, 전남지역 2위인 장흥군(1.77명)과도 0.69명 차이가 난다.

영광군은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육아 지원에 힘입어 2019년 2.54명으로 최정상에 오른데 이어 올해도 전국 1위를 이어갔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시책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다.

영광군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결혼 감소와 저출산의 복합적 원인이 되는 인구감소, 청년실업, 주거, 일·가정 양립 등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였다.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출산·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용품과 신생아 양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출산전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 예비(신혼)부부교실 등 맞춤형 출산장려 시책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청년정책 시행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 3년차인 올해도 3개 분과 80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인구 유입에 노력하고 있다.

인구 지탱의 기반이 되는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 촉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이 기금은 취업활동 수당 지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운영,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조성, 청년드림업 321프로젝트 등 다양한 청년지원 시책에 쓰인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복주택 건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을 담은 정주여건 분야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라는 큰 성과를 거두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광군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영광군 제공)

맞춤형 인구·결혼출산·청년·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영광’을 만든

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ilee@kwangju.co.kr

해남미남축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수상

온·오프 결합 스마트축제 호평

해남미남축제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한 ‘제9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객관적이고 엄중한 평가를 거쳐 매년 수상축제를 선정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비대면 및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축제까지 다양한 형태를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축제대상을 선정했다.

제2회 해남미남축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스마트축제로 개최됐다.

오프라인 행사로는 해남의 정성과 맛을 담은 도시락 2020개를 전국의 코로나 대응 보건의료진과



관내 어르신 요양시설 등에 전달했다.

또 유명 셰프 등이 요리대결을 벌이는 온라인 미남푸드쇼와 해남농수산물 판매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가 해남을 찾는 랜선미식여행 등을 통해 먹거리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였다.

/해남=박희정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의료비 지원

진도군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개인은 100만~200만원, 단체는 150만~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문예지 발간과 전시·창작·연구 지원(지역예술육성 분야), 의료비·교육비 지원(예술인 복지 분야) 등이다.

특히 전남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예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 출신 영재 육성을 위해 국악, 한국무용 등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강습료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사무실 소재지나 대표자 주소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이면 된다.

신청서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영암군 식물조직배양실 신축

종묘 16만본 생산 규모...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 확대

영암군이 식물조직배양실을 신축해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영암군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직배양실과 유리온실 등을 갖춘 989㎡ 규모의 식물조직배양실을 신축·준공했다고 3일 밝혔다.

조직배양실은 식물의 생장점을 채취해서 바이러스나 병균이 없는 무병묘를 생산하는 곳이다. 무병묘는 일반묘 재배보다 고구마의 모양과 빛깔, 윤기가 우수하며 맛도 좋아 고구마 재배농가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번에 신축한 조직배양실은 기존 시설에 비해 4배 이상 큰 연간 16만본의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512㎡ 규모의 유리온실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배양실에서 순화·증식까지 고구마 무병묘를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중저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조직배양실은 영암



영암군이 고소특작물인 고구마의 무병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식물조직배양실을 신축했다. (영암군 제공)

지역 주 소득작목인 고구마의 안정적 생산과 재배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를 공급하고 있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신축한 조직배양실과 순화온실은 고구마 국내 육성품종의 조기 보급 확대와 바이러스 없는 무병묘를 보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차적으로 고구마 무병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충전! 지역화폐

‘카드형 무안사랑상품권’ 출시

무안군이 1일 충전이 가능한 ‘카드형 무안사랑상품권’을 출시, 공급하고 있다.

무안사랑상품권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출시된 카드형 무안사랑상품권은 충전식 체크카드(NH농협은행)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신청은 스마트폰 ‘play스토어’나 ‘App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차크(chak)’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은 신분증, 휴대폰을 지참해 무안군 관내 농협과 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형 무안사랑상품권은 기존 지류형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 중 NH농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거나 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의 또는 NH농협카드 미가맹점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카드 상품권이 아닌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출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안사랑상품권은 지류, 모바일(QR), 카드 등 3종류로 특별 할인율 10%를 적용하며, 상품권은 이들 3종을 합산해 개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카드형 무안사랑상품권 출시로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S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